



무안양파 수확 한창 15일 오후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 현경의 양파밭에서 막바지 양파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해엔 양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부가 중국산이나 일본산을 수입하는 등 가격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올해는 기대심리로 인해 재배면적이 넓어지고 출하물량도 늘면서 광주 서구 풍암동 농산물시장의 경우 경매가격이 20kg들이 한 방에 1만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이 주도한 국민의당 외연 확대로 정권 창출”

안철수 공동대표 인터뷰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5·18 특별법 개정안

여야에 당론 발의 제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15일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국민의당이 정치 변화를 선도하며 전국 정당으로 성장, 정권 창출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5면)

안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여야에 당론 발의를 제의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났다.

안 대표는 이날 전국 지방일간신문 최초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호남은 지난 총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권 창출의 속제를 안겼다”며 “양 극단을 제외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화 등에 따른 특급호텔 수요가 많은 만큼 인·허가 절차를 신설해 인해 최대한 착공이 빠르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5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 대비책으로 특급호텔·면세점 등의 유치에 대한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 등 2만6634㎡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기자 cki@kwangju.co.kr

개헌보다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 분권 등에 대해 우선 접근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 야권후보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변화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리베이트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인 뒤, “객관적인 당내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은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의 애곡·납조 행위를 처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제정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에 당론 발의를 제의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났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면 이는 국민 통합과 협치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권력구조



김은영 그림생각-유월 ▶3면

각화동 조합아파트 신축 교육청-시행사 갈등 ▶6면

호남출신 파독 간호사 광주 계림동 장헌자씨 ▶18면



강정호 9호 홈런 ‘퐁’ ▶20면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속도 낸다

〈랜드마크 복합시설〉

9월께 인·허가 절차 다시 돌입 ...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건립 1년 늦어져 2019 세계수영대회 전 준공은 힘들 듯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호남 최대의 특급 호텔 건립사업이 오는 9월께 인·허가 절차에 다시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착공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19년 7월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전 준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광주신세계가 추진중인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애초 4월 건축허가 완료, 5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5월 특급호텔 건립 계획 발표 후 7월 건립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지만 ‘시설 내 과도한 판매면적’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광주신세계 측은 같은해 12월 판매면적을 15% 축소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시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마련, 건폐율(68%) 완화, 주변 도로 폭 확장, 공공보행로 확보, 인근 상권 위축에 대한 해결방안 등 9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광주신세계 측은 특급호텔 추진이 지지부진한 요인 중 하나로는 인근 상권 위축을 우려한 급호텔도 입점 상인 등 일부 상인들의

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특급호텔 건립에 따른 광천동 사거리 일대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방안 마련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해 광주신세계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독일 G사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9월께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9월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교통영향심의회 건속심의 등을 거친 뒤 건축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절대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 준공은 어렵게 됐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 등에 따른 특급호텔 수요가 많은 만큼 인·허가 절차를 신설해 인해 최대한 착공이 빠르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5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 대비책으로 특급호텔·면세점 등의 유치를 위한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 등 2만6634㎡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기자 cki@kwangju.co.kr

‘아트:광주:16’ 문화전당서 첫 개최

2016 제7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6’이 오는 8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문화전당에서 아트페어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17면>

올해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0여개국 약 80개 갤러리, 작가 500명이 참여한다. 지난 행사에서 호응을 얻었던 개인 작가부스도 약 100개 설치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3개 구역에서 진행된다. 예

8월 24일~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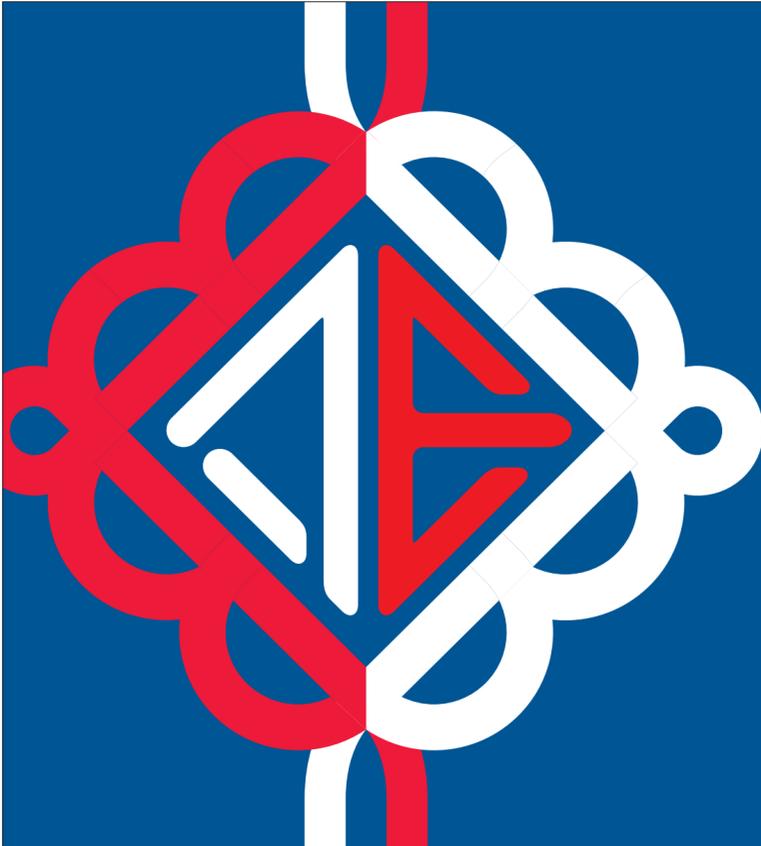
10여개국 500여 작가 참여

술극장에는 갤러리 부스가 설치되고, 개인 작가부스는 문화장조원 복합5관에 설치된다.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각종 ‘비엔날레 특별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 ‘2016조각 페스티벌’, ‘유네스코 특별

부스’ 등 각종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또 작가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페차쿠차(Pechakucha) 광주’, 미술애호가와 콜렉터를 위한 ‘8·24 광주 아트파티’, ‘아트카페’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한다. 행사 기간 광주로 친구한사람을 초대하는 ‘팔이사(824) 광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7th Asia Europe Culture Ministers Meeting

주제

“문화와 창조경제 (Culture & Creative Economy)”

일자: 2016. 6. 22(수) ~ 6. 24(금)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일원

주최: 

참석: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51개국 대표단, 2개 국제기구 대표단 등 200여명

www.asem2016cmm.org